

국내 최고급 제네시스 G90 리무진 첫선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여유롭고 편안함 느껴지는 고품격 내부
기존 세단 대비 '전장 290mm' 늘려 더욱 넓고 여유로운 뒷좌석 확보
리무진 전용 킬링 패턴·세미 애닐린 '최고급' 가죽 시트 기본 적용



제네시스 브랜드가 기존 G90 세단보다 전장을 늘려 웅장한 외관과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확보한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 리무진을 출시했다. 사진은 제네시스 G90 리무진 내부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제네시스 브랜드는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의 리무진 모델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G90 리무진은 기존 세단보다 전장이 총 290mm 늘어나 더욱 웅장한 외관과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확보했으며 세미 애닐린 가죽 시트와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등 최고급 사양이 적용돼 높은 품격과 안락한 승차감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G90 리무진의 외관이 스피드 문 귀족 가문 문장 형태의 당당하고 품위

있는 크레스트 그릴에 △크레스트 그릴 상단에 적용된 크롬 가니쉬를 통해 웅장함이 잘 드러나고 △아웃사이드 미러 베이스 및 언더 커버 크롬 코팅으로 고급감을 강화했으며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인 쿼드 램프는 브랜드의 독창성을 표현하고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실내는 B필러가 250mm, 후석도어가 40mm 연장돼 실내공간(레그룸)이 총 290mm 늘어나 동급 최대 수준의 여유로

운 공간이 확보됐으며 △리무진 전용 킬링 패턴 △투톤 스티어링 휠(투톤 내장 컬러 적용 시) △블루와 브라운 투톤의 리무진 전용 컬러가 추가되는 등 고급스러움이 강조됐다.

특히 G90 리무진시트에는 최고급 럭셔리 차량에 사용되는 세미 애닐린 가죽이 기본 적용돼 한 차원 높은 고급감을 제공하며 후석 탑승객을 위해 서류나 신문 등 자주 사용하는 책자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매거진 포켓을 더해 편의성과 실

용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독서 △영상 시청 △휴식 등 다양한 착좌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는 미끄러짐 없이 부드럽고 안정되게 몸을 감싸는 최상의 안락감을 제공하며 전동식 레그서포트를 포함한 총 18개 방향의 시트 전동 조절 기능으로 머리부터 어깨와 다리까지 신체의 전 부위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 탑승객이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하지 않도록 돕는다(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선택 적용).

G90 리무진은 타우 5.0 V8 GDi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425마력(ps), 최대토크 53.0kg·m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강력한 동력성을 발휘하며 정부 공동고시 연비기준 복합연비는 7.2km/ℓ다(AWD, 19인치 타이어 기준).

여기에 전자식 상시 4륜 구동시스템(AWD) '에이치트랙(HTRAC)'을 적용해 동절기 눈길 및 악천후 운전시에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고속 주행시 안정감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GENESIS Adaptive Control Suspension)'을 기본 탑재했다.

G90 리무진은 프레스티지 1개 트림만 단독으로 운영되며 판매 가격은 1억5511만원이다(개소세 3.5% 적용 기준).

제네시스는 G90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모델이며 이번에 출시한 G90 리무진 모델은 고급감을 강화하고 최상의 실내 공간을 완성했다며 제네시스 브랜드는 고객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zkj0000@



국산차 5개차 실적(PG).

/연합뉴스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두달 연속 '↑'

새해 신차·SUV 호조

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실적이 신차출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증가, 친환경차 약진 덕분에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신차 출시와 2월 설 연휴에 대비한 조기생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증가한 35만4천305대를 기록했다.

내수의 경우 SUV 판매 증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 등으로 1.5% 증가한 13만6천157대가 팔렸다.

수출은 SUV 및 친환경차가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며 12.6% 증가한 21만3천618대를 달성했다.

지역별 수출은 북미에서 19.6% 증가한 15억2천200만달러(약1조7천억원), 유럽에서 20.4% 증가한 8억2천

친환경차는 내수에서 그랜저 HEV, K7 HEV 등 하이브리드차의 인기 덕분에 12.5% 증가한 8천464대 판매를 기록했고, 수출도 코나 EV와 니로 HEV·EV 등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64.3% 증가한 2만1천22대를 기록했다. 수입차의 경우 경유차량의 판매 감소와 함께 일부 업체의 재고물량 부족으로 내수 판매가 14.9% 감소한 1만8천701대에 그쳤다.

국내 완성차업체 내수 판매에서 현 대치는 팔리세이드, 제네시스 G90, 쉐보레 등 중대형 신차 위주로 호조를 보이며 17.5% 증가했고, 쌍용차도 렉스턴 스포츠 칸의 신차출시 효과로 14.5% 늘었다.

반면 한국GM은 스파크의 판매 부진 등으로 35.6% 감소했고 부분파업을 겪은 르노삼성도 세단형 모델 판매 감소 등으로 19.2% 줄었다.

/김태업 기자 esaca@

르노삼성, 준중형·초소형 전기차 가격 인하

르노삼성자동차는 준중형 전기차 2019년형 SM3 Z.E.와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 위치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새로 출시한 2019년형 SM3 Z.E.는 디자인과 사양을 개선했음에도 판매가격을 250만원 내려 SE 트림 3천700만원, RE 트림 3천9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신규 적용된 8인치 스마트 커넥트 II 내비게이션은 100만원 상당으로, 가격 인하분을 고려하면 총 350만원의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르노삼성의 설명이다.

8인치 스마트 커넥트 II 내비게이션은 기존 7인치에서 8인치로 더욱 커진 화면

에 풀 미러링, 멀티터치 스크린 기능이 추가됐다.

개선된 Z.E.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충전 상태, 인근 충전소 위치, 주행 가능 거리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외관 디자인은 블랙 베젤 헤드램프, 블랙 사이드미러, 다크 크롬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등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으며 실내에는 블루스티치(바늘땀)와 블루 스피커 장식으로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르노 트 위치는 이번에 가격을 70만원 인하해 인텐스 트림이 1천430만원, 카고 트림이 1천480만원에 판매된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차 전복시 자동 구조 신호 송출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긴급구난 콜' 기술 개발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거나 바퀴가 헛돌면 자동으로 구난 신호를 보내는 한국형 시스템 '긴급구난 콜'을 선보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최근 긴급구난 체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기 7종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긴급구난 콜' 기술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 정보를 관제 센터에 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단말기가 사고를 인식하는 방식은 기존 에어백 작동 여부에 따르는 방법에서 진화했다. 교통사고 충격을 탐지하는 센서가 내장된 각종 기기를 통해 관제 센터는

사고 위치 정보, 탑승객 수, 사고 차량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이로스코프 센서로 차량 기울기 변화를 통해 사고를 판단할 수 있다.

연구팀은 차량 전복이나 바퀴벌 회전 상황 등 복합 변수를 고려했고, 일정 시간 안에 차량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는 상황도 분별한다.

단말 장치 자체가 스스로 초기 설정값을 조절해나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하게 판정할 수 있다.

관제 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탑승자가

구조 버튼을 눌러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다. 장시간 응답이 없는 경우에도 e-Call 시스템은 가동한다. 만약 실제 사고가 아니라면 서비스 시행을 거절하면 된다.

연구진은 e-Call 서비스 기술을 7종의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단말기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 적용했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량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표준 및 차량 단말 개발과제로 수행했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Creating a New City - CNCITY에너지

Human Energy Safety Happiness

충남도시가스가 CNCITY에너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최고 품질의 에너지와 고객 존중의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온 CNCITY에너지 모두 함께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CNCITY 에너지